

경계선 장애 영유아의 이해 및 지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발달이 느린 아이 진단 및 보호자 상담하기

임상심리전문가/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이민희

조기발견과 개입의 중요성

영유아기는 인간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발달상 문제를 야기하는 위험요소는 영유아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후의 학습과 성장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발달지연의 현상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심해져서 전형적인 발달과의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개입을 통하여 전체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2차 장애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 장애 조기발견에 따른 개입을 통해 장애영유아와 그들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의료, 복지, 심리·사회, 교육, 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부모와 그 가족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감소시킬 수 있음

장애 조기 발견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개월 별로 구분하여 총 7차 까지 영유아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 영유아발달선별검사도구(월령별)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 정보 > 건강검진 실시안내 > 영유아건강검진 > 발달선별 검사지 사용기간 조회/검사지서식

- ▶ 검진항목에는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도 포함되어 있으며, 검사결과 실제로 발달상의 어려움이 예측되는 ‘심화평가 권고’나 ‘추적 검사 요망’, ‘지속관리 필요’의 발달평가 결과를 가진 영유아가 발견 될 수 있음

연령별 발달 적신호

[영아반교사] 생후 38개월 된 남아입니다.

- 1 ○○은 움직일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합니다.
- 2 사물을 잡으려고 할 때 손을 뺀거나 방향을 잡는 것이 잘 안됩니다.
- 3 근육이 뭉치거나 긴장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적신호 사례

[유아반교사] 3세 된 여아입니다.

- 1 잘 울지 않고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2 언어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확실히 또래수준에 비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 3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3세 정도 또래들은 모방을 잘 하는데, ○○는 그렇지 않습니다.
- 4 저를 뚫어지게 바라볼 때도 있고요, 눈맞춤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 5 부르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앞치마에서 비닐 소리가 나면 얼른 다가옵니다.

적신호 사례

[유아반교사] 5세 된 남아입니다.

- 1 . 학습속도가 느리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 2 .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하나의 활동을 시작하면 지속시간이 짧습니다.
- 3 . 주의집중의 범위가 좁고, 초점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3개월

아기 발달

수유 시 잘 빨고 수면패턴이 일정해진다.
소리나 목소리에 웃거나 조용히 집중한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움직이는 사람이나 장난감을 눈으로 쫓는다.
누워있을 때 가슴 위쪽에 있는 딸랑이를 손으로 뺨어 잡으려고 시도한다.
얼굴이나 장난감을 보려고 머리를 가운데에 두고 유지할 수 있다.
엎드려 팔로 지지하고 고개를 들고 있다.

.

아기 발달 적신호

수유할 때 엄마얼굴을 쳐다보지 않는다.

안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몸을 뒤로 많이 뺀다.

등대고 누워서 허공에 다리를 들거나 차는 것이 어렵다.

안고 있을 때 목을 가누지 못한다.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배를 대고 누워 고개를 들기 어렵다.

다리가 뻗뻗하고 무릎을 굽히지 않는다

12개월

엄마" 혹은 "아빠"를 의미를 담아 사용한다.

“이리오세요”와 같은 단순한 지시에 반응한다.

손가락으로 집어 먹는다.

통에 물건을 넣을 수 있다.

작은 물건을 집으려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한다.

가구를 잡고 일어서서 이동을 하거나 혼자 서서 몇 발짝 걸을 수 있다.

12개월 적신호

- ▶ 9개월까지의 적신호 외에 “마마”, “빠빠” 등의 자음과 모음이 섞인 소리를 내지 않는다.
- ▶ 물건을 잡고 뒤집어 보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탐색을 하지 않는다.
- ▶ 누워 있다가 스스로 일어나 앉지 못한다.
- ▶ “주세요”, “이리와” 등 손동작을 보여주며 하는 간단한 지시를 따르지 못한다.
- ▶ 붙잡고 일어서지 않는다.

24개월

성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두 단어를 연결한 말을 한다.

노래의 구절을 혼자 부른다.

같은 기능의 물건을 구분할 수 있다.(예: 책들, 자동차들)

짜증이 많아지고, 수줍음, 죄책감, 수치심, 시샘 같은 감정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공을 앞으로 던지거나 통속에 던져 넣는다.

24개월 적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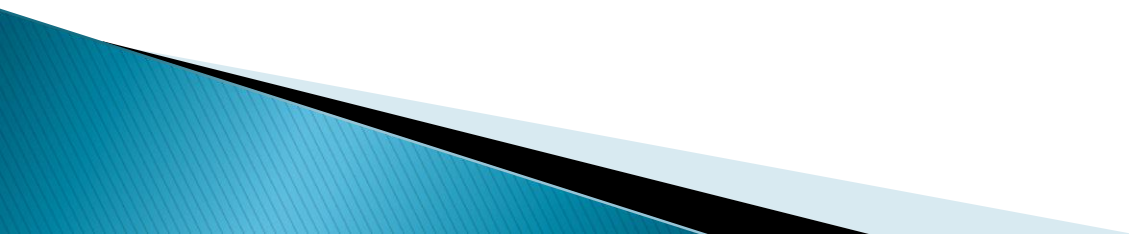
18개월까지의 적신호 외에 인형이나 피규어를 가지고 역할놀이를 하지 않는다.

사용하는 단어가 20개가 되지 않는다.

신발, 바지, 양말들을 스스로 벗지 못한다.

뛰어다니지 못한다.

또래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30개월

책의 세밀한 그림이나 내용을 기억한다.

자신의 경험을 짧은 문장으로 설명한다.

부모의 일상을 도와주는 행동을 한다.(예: 정리하기)

스스로 숟가락, 포크로 먹기, 손 씻고, 양치질 등을 시작한다.

규칙 있는 일과를 좋아하고 바뀌는 일정에 짜증을 내기도 한다.

구성하는 놀이(블록으로 탑 쌓기)를 또래와 같이 할 수 있다.

30개월 적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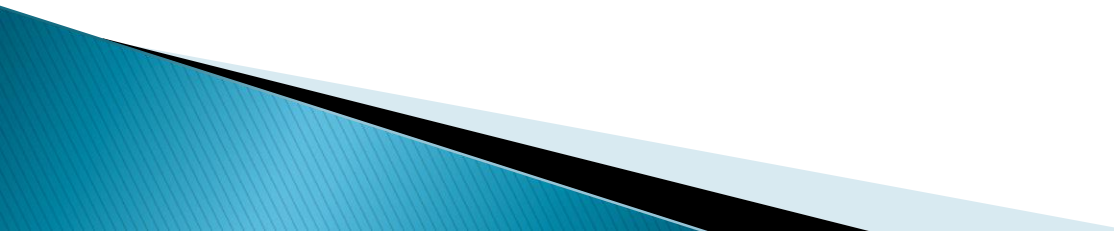
24개월까지의 적신호 외에 크다, 작다, 하나 등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두 단어를 연결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노래의 소절들을 스스로 부르지 못한다.

부엌세트나 농장세트 장난감의 기능에 맞게 놀지 못한다.

그룹 프로그램의 규칙을 따르지 못한다.



그 밖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몸이 뻣뻣하거나 관절을 굽히는 것을 힘들어 한다.

한번 울면 달래기가 어렵다.

몸이 너무 축 쳐져 있거나 움직임이 적다.

소리 내어 울지 않는다.

몸을 움직일 때, 한쪽을 더 많이 사용한다.

놀아줄 때 눈 맞추고 즐거워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손으로 만지는 것이나 신체접촉을 싫어한다.

영유아 선별도구

부모작성형 모니터링체계(K-ASQ)

4개월~60개월

한국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4개월~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시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탑재

덴버 발달 선별 검사(K-DDST-II)

- ▶ 1개월~6세
- ▶ 연령별 검사 도구 사용
- ▶ 4개 영역으로 구성: 가
- ▶ 미세운동 적응성, 언어



한국판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K-Bayley-III)

- ▶ 1개월~42개월
- ▶ 3개 영역으로 구성· 지능(178항목)· 우동(111항목)· 유아행동기록 (30항목)
- ▶ 아직 말을 하지 못
- ▶ 기능에 대한 상세



한국판 아동발달 검사 (K-CDI)

15개월~6세 대상

부모 관찰을 통하여 유아의 식도입는 발달적 정보를 얻는 체

계적인 아동발달검사
발달영역(사회성, 자조
언어이해, 글자, 숫자
과 문제 영역 (시
능력 문제, 언어능력
문제, 정서 문제의 7



한국판 바인랜드 적응행동 2판

- ▶ 0세 ~ 90세
- ▶ 의사소통, 생활기술, 사회화, 운동기술의 4개 주영역 (433 문항) 및 선택적으로 섹터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주영역과 하위영역별로 표준간 비교뿐만 아니라 여러 기 가능함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CARS)

- ▶ 만2세 이상
- ▶ 자폐증이 있는 유아를 진단하고
- ▶ 경증 혹은 중간
- ▶ 중증의 자폐이
- ▶ 15개의 문항으로
- ▶ 직접적인 행동
- ▶ 이고 수량화돈
- ▶ 사용함



한국판 웨슬러 유아지능검사 5판 (K-WPPSI-V)

- ▶ 만6세~16세
유아의 인지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개인 지능 검사로, 전반적인 인지
능력을 나타내는 전체 IQ와 특정
인지 영역의 지적 기능을 나타내는
소검사와 지표점수를 제공함
- ▶ 기존 검사에서 새로운 3개의
소검사(무게비교, 퍼즐, 그림기억) 추가
- ▶ 만6-7세 3개월 아동의 경우 평균
이상의 지능과 보통 수준의 의사
소통능력이 있다면 한국판 웨슬러
아동지능검사 (K-WISC-V) 를 사용
할 수 있으나 평균 이하일 경우
한국판 웨슬러 유아지능검사 사용
권장



장애가 의심된다면 어디에 가야 하나?

- ▶ 장애의심상황 : 발달단계에 따른 전형적인 행동양상이 보이지 않을 때, 원인미상, 선천적 질환, 유전자 이상
- ▶ 장애여부상담 : 아동상담센터(치료기관), 병원에서 발달 평가
- ▶ 장애인등록관련 상담: 동주민센터(장애등록절차, 구비서류 등 정보제공)
- ▶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043-716-2166

병원예약

- ▶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
- ▶ 자폐성장애: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 지적장애: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진단 및 등록시기

- ▶ 뇌병변장애:뇌성마비가 있는 경우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진단.
- ▶ 정신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 ▶ 자폐성장애: 전반적 발달장애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
에

부모상담

1.부모 상담 기본 원리

(1)부모의 마음읽기

자녀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걱정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중적인 마음이 있음을 이해해야 함

(2)부모와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준비

부모와 친밀한 관계 정립을 위해 마음을 다해 성심껏 임하는 태도가 중요 함

(3)부모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기

부모의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모두 경청할 것->

정보수집이 용이하게 될 뿐 아니라 부모의 기대와 요구, 문제상황 등이 명료해짐

(4)전문성과 진정성을 담은 태도

- ▶ 교사는 원아 관찰자료를 통해 현재의 활동수준과 발달과업 수행 정도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상담시 활용
- ▶ 원아의 원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교사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부모를 대할 것

단, 부모의 정보와 제안을 경시하지 않도록 하고, 부모를 동등한 협력자로 인정할 것

2. 부모님과 수시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1)가정통신문

원 행사나 준비물 등 반별 또는 전체 원아에게 필요한 공통 안내 사항도 부모가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해야 함

(2)대화수첩(또는 스마트 알림장)

원과 가정에서 아동이 생활한 이야기를 적어 교환함으로써 아동이 매일 일관성 있고 세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등원 후 아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바로 부모님께 스마트 알림장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필요
(예. 얼굴의 상처, 계속 우는 경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3)전화상담

원에서 사전에 부모님과 전화상담 시간을 약속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음

*전화 상담은 낮잠시간이나 대부분이 하원 한 시간대에 진행됨을 부모에게 안내함. 등 하원 시간에 긴 부모와의 상담은 보육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정한 시간을 활용할 것.

3. 장애 자녀를 둔 가족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교사의 지원 전략

(1) 분노의 단계로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가득한 부모를 만났을 때

경청하고 공감해주기

부모를 질타하지 말고 기다려주기

원에서의 생활 중 자녀의 긍정적인 부분을 자주 이야기해주고,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2)죄의식의 단계로 죄책감에 사는 부모를 만났을 때

죄책감과 죄의식은 우울증, 열등감, 무력감으로 이어져
오히려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나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위로
자가 되어주기

장애의 원인을 찾고 후회하기 보다는 실제로 부모가 원
아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 지, 그에 따라 자녀의 성취
감, 자아상, 미래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 지를 안내하기

(3)부정의 단계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를 만났을 때

일상적인 만남, 개별상담, 개별화 교육계획(IEP)을 수립하는 시간에 현재 아동의 영역별 발달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4)장애를 수용하고 승화시킨 부모를 만났을 때

교사와 부모 간 협조를 통해 더욱 상생하기

긴 마라톤의 과정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응원하기



4.부모 유형에 따른 상담

(1)자기 자녀에게만 신경 써 주길 요구하는 부모

개별상담이라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라고 수용한 후 ‘하지만 모든 원아가 소중하여 고루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부드럽게 표현함

(2)교육적 /비교육적 소문에 민감한 부모

- ▶ 교육목표와 내용, 근거 등은 가능한 공개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신뢰감을 형성
- ▶ 소문이 사실일 경우에는 부모의 이야기를 경청하지만 소문에 우왕좌왕하는 부모의 태도는 원아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전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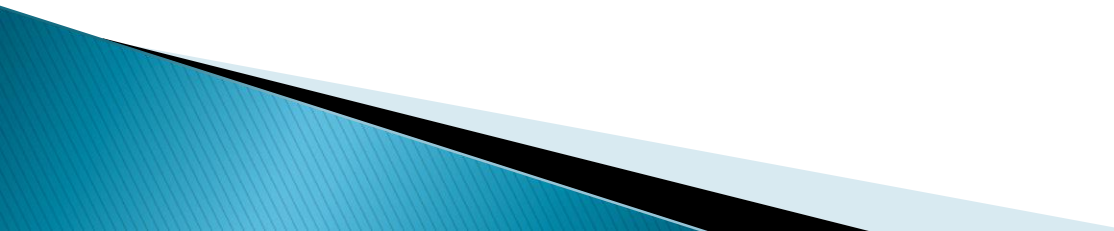
(3)자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모

- ▶ 한꺼번에 원아의 문제점을 전달하기 보다는 우선,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형성한 후 하루 일과를 평이하게 이야기하듯 원아의 상황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 함
- ▶ 원아의 문제점이나 지도가 필요한 점을 전달할 때는 반드시 강점도 함께 전달 할 것
- ▶ 교사 자신의 경험보다는 심리검사나 전문가의 평가에 근거하여 원아의 상황을 부모에게 전달할 것(예.KPRC)

(4) 책임을 전가하는 부모

- ▶ 자녀의 어떤 행동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을 시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음
- ▶ 부모와 교사 각자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교사와 부모의 협조가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줄 것

(5) 빠른 변화를 원하는 부모

- ▶ 부모의 조급함 속에 깔려 있는 기대와 소망을 수용하면서 변화의 때와 시기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을 설명해 줌
 - ▶ 자녀의 변화는 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줌
 - ▶ 부모의 조급함은 오히려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음을 안내
- 

(6)비협조적인 부모

- ▶ 원 행사와 자녀교육에 비협조적인 부모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원의 교육방침, 교육내용과 목표, 근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함
- ▶ 부모가 비협조적이라고 거리를 둔다면 관계는 더 악화될 수 있음

(7)무관심한 부모

- ▶ 무관심한 것 같은 부모는 나중에 한꺼번에 불만을 토로할 수 있으므로 무뚝뚝하다고 교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됨
- ▶ 자녀를 매개로 자주 대화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부모의 의사를 때때로 살펴야 함

초등입학 안내

입학유예(보호자가 읍면동 장에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특수학교, 특수학급, 대안학교 안내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특수교육 실무사, 지도사)

발달 수준 파악과 기본 생활습관 기르기

입학후 적응

비장애 형제 고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진단, 평가